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언론 및 전문가들은 환경산업의 발전을 낙관하고 있다. 환경산업이 '미래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말은 많이들 하지만 현재 피부로 느끼는 환경시장 온도는 5월의 햇살을 무색하게 만든다. 환경관련 학과를 전공한 80% 이상의 졸업생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 및 개발둔화로 일선 근무자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경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전문가가 있다. 지난 3월 환경산업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권형기 한라산업개발(주) 대표이사를 만나 국내 환경산업을 진단해 보았다.

(편집자 주)

“

환경산업의 발전 위해 밀거름 만들 터

”

▶ **지난 3월부터 환경산업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협회의 간단한 소개와 임기기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0년 환경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환경부로 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환경산업협회는 현재 400여 일반산업체 회원과 특별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관계법규 및 규제에 대한 개정요구와 환경 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협회의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회원사는 물론 우리나라 환경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돕기 위하여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이달 중으로 중국 북경에 '한국환경기술상설전시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국시장정보 수집에서부터 수주활동 전개 등 공동진출을 모색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죠. 또한 이를 계기로 유럽 및 동아시아 등 연 40여회 이상 개최되는 세계환경관련 전시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환경산업체 현황조사'입니다. 현재 약 2만여개로 추정되는 환경산업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불어 환경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 조사자료는 우리나라 환경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과 해외시장 정보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기기간 동안 협회의 설립 취지를 되살려 회원사들이 개별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고 보충해 각 사별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협회, 자생하는 협회, 협회의 존재이유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 **환경산업협회의 수장으로 방지시설업체인 한라산업개발 대표이사로 계신데 나름대로 국내환경산업을 평가하신다면? 이와 함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최근 환경산업은 채산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관수를 제외한 일반기업의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유지 보수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고부가가치 산업, 미래산업이라는 환경시장의 미화 및 환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환경사업은 일반화되었다고 봅니다. 탄탄한 기술기반 위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야 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환경산업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시장에 대한 예측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환경산업업체들이 먼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장비 등 새로운 영역의 환경산업 분야가 도출되니까요.

앞으로 환경산업 시장은 꾸준히 커집니다. 환경시장이 발전할수록 종사하는 업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고충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가기 보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미래의 국내 환경산업을 리더하리라 봅니다.

▶ **환경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이에 비해 환경보존에 대한 연구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부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과학을 신뢰하고 이러한 과학기술에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환경보전에 있어서는 과학기술 의존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보**



완벽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내 환경기술의 현황과 대책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국내 환경기술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하여 왔습니다만 선진국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환경선진국에서는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 환경기술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벤처기업의 붐이 일고 있는데, 이는 환경시장을 전문화, 세분화해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기술개발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 대부분이 규모면에서 영세하므로 정부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간다면 국내 환경기술도 곧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관련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더 이상 환경학과의 비전이 없다고도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는데 비전제시와 대책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에 대한 비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지속적으로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세분화된 환경기술인데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기업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관련학과 취업을 저조는 현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부분 환경공학과 내지 환경학과 부류인데 이러한 학과의 졸업생은 바로 환경관련 현장에 투입되기 어렵습니다.

세분화된 전문교육 실시로 환경관련 전문인을 배출하는게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토목환경, 환경건설링, 환경전기, 환경미생물, 환경기계, 환경관리, 환경약품 등의 전문가로 육성한다면 좀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학년에서는 환경전반적인 개요 등을 교육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실무자들의 세분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련 다양한 협회들이 많습니다. 이들 협회의 발전방

항을 제시하신다면?

-협회는 회원 및 회원사들이 개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고 권익보호와 위상확립 등 회원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관련 단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많은 협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의한 단체생성보다 단체결성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단체의 존재이유 정립부터 분명하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전개와 가치를 창출해야 존립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회원사들의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환경철학 또는 경영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것의 중심에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정치가 아닙니다. 환경관련 의견 만큼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을 아는 사람이 균형을 교란시키는 사례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환경관련 님비현상이 팽배해 있는데 이걸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경영에 있어서도 균형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환경산업체로 발돋움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환경산업협회와 환경관리인연합회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관계이지요. 환경관리인들의 다양한 의견은 환경산업의 발전을 앞당깁니다. 연합회와 연계해 다양한 세미나 및 의견소통기구로 활용, 향후 지속적인 교류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환경관리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환경관련 현장경험자들의 기술은 상당히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적으로 상당한 자산인데 이를 피드백해서 환원하는 것을 적극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관리인들 또한 전문인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국내환경기술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축적이 최대 과제인데 환경관리인들이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산업은 종합플랜드 산업이므로 관련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할 때만이 발전 가능한데 관리인들과의 상호교류가 이의 발전을 앞당기리라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권영기 회장 주요약력

1950. 4 경북 안동 출생

학력

1968. 2.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3. 3. 성균관대 법률학과 졸업(법학사)

1981. 8.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수료(경제학 석사)

경력

1975. 10~1983. 8. 만도기계(주)

1983. 8~1999. 9. 한라중공업(주) 환경사업실장

1999. 9~ 현재 한라산업개발(주) 대표이사

1995. 3~1996. 2. 한국대기보전학회 이사

1993. 3~ 현재 한국폐기물학회 평의원 감사

1996. 3~ 현재 한국소각기술협회 이사

1999. 2~2001. 2 한국환경산업협회 부회장

2001. 3~ 현재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1997. 5. 건설(환경)분야 기술개발관련 국무총리표창